

KOSME 산업분석Report

ICT : 핀테크

2019. 10



I. 핀테크 산업의 이해	5
1. 핀테크란?	6
2. 유형	7
3. 특징	8
4. 등장 배경	9
II. 유형별 핀테크 산업	10
1. 간편송금 및 결제	11
2. 클라우드 펀딩	15
3. P2P 대출	18
4. 인터넷 전문은행	21
5. 자산관리	24
6. 레그테크	27
7. 인슈테크	30
III. 국내·외 핀테크 동향	33
1. 국내 동향	34
2. 해외 동향	38
3.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	41

요 약

핀테크 산업

- (정의) 핀테크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를 의미
 - * 성격과 유형에 따라 전통 핀테크(Traditional Fintech)와 신생 핀테크(Emergent Fintech)로 구분되며, P2P 대출, 간편송금 등 기존 서비스를 대체하는 서비스를 신생 핀테크라 함
- (특징) 대형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묶음(Bundle) 식으로 제공하던 복합적 기능을 분해해 전문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
 - *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이 사업 아이디어를 서비스로 구현하여 금융 분야에 진출
- (등장배경) ICT 발전과 모바일의 급속한 확산, 금융소비자의 라이프 패턴 변화, 각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및 규제 해제 등에 따라 핀테크 산업이 금융 산업의 혁신대안으로 부상

유형별 핀테크 산업

- (유형) 핀테크는 간편결제 · 송금, P2P 대출, 클라우드펀딩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포함하며, 기술의 발전으로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유형별 핀테크 산업】

구분	내용	대표업체
간편송금 및 결제	공인인증서나 OTP, 카드정보 입력 등 복잡한 과정을 축소하여 간편하게 송금 · 결제	토스, 삼성페이
클라우드펀딩	창의적 아이템을 가진 초기 기업을 비롯한 자금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	와디즈
P2P 대출	기업이나 개인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	렌딧
인터넷 전문은행	은행 산업 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 인가된 은행으로 기존 대형 은행과는 차별화된 채널을 운용하거나 모바일 등 디지털 경험 서비스 제공	카카오뱅크
자산관리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동적으로 포트폴리오 자문 · 운용 서비스를 제공	뱅크샐러드
레그테크	규제와 기술의 합성어로, 금융 규제 사항에 대해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게 해주는 시스템	에임스
인슈테크	보험과 기술의 합성어로 신기술을 이용해 보험 산업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	보맵

요 약

☞ 국내·외 핀테크 동향

- (국내) 2018년 기준 국내 핀테크 기업은 약 300여개이며, 서비스 분야별로 P2P 대출, 간편송금·지급결제 업체가 큰 비중을 차지함
 - * 국내 핀테크 기업 투자유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18년 기준 24건 1.98억달러를 기록해 전 세계 투자유치(1,996건, 403억달러)의 약 0.5% 비중(금액기준)을 차지
 - * 한국의 핀테크 도입지수는 '17년 32%에서 '19년 67%로 큰 폭으로 상승하여 27개 조사국 중 11위
- (해외) 미국, 영국, 호주 등 영·미권 국가에서 핀테크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짐
 - * 국가별 100대 핀테크 기업 : 미국 18개, 영국 12개, 중국 11개, 호주 7개, 한국 2개
 - *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 : '19.1월 기준 39개사로 한국은 1개사(토스)

part.



01 →

I . 핀테크 산업의 이해

1. 핀테크란?
2. 유형
3. 특징
4. 등장 배경

I 핀테크 산업의 이해

1. 핀테크란?

▶ **【정의】**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를 의미

* IT를 통해 새로운 사업 분야가 창출되는 것이며, 금융업의 가치사슬을 와해시킬 수 있는 파괴자(disruptor)의 속성을 가지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

▶ **【구분】** 핀테크는 성격과 유형에 따라 전통 핀테크(Traditional Fintech)*와 신생 핀테크(Emergent Fintech)**로 구분

* (전통) 금융회사의 업무가 자동화·효율화 되도록 지원하는 IT 서비스, 금융 소프트웨어 등 기존의 전자금융을 의미

* (신생) P2P 대출, 간편 송금 등 기존 서비스를 대체하는 금융서비스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핀테크는 신생 핀테크를 의미

【전통적 핀테크(전자금융) vs 핀테크】

구분	전자금융	핀테크
정의	전자적 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기술을 핵심 요소로 하는 금융서비스 혁신
포지셔닝	기존 금융서비스의 효율성 개선을 지원하는 역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
주요역할	금융 인프라 지원, 유지 및 보수	기존 인프라를 우회하여 직접 금융 서비스 제공
주요기업	IBM(솔루션), Symantec(정보보안) 등	Ailpay(지급결제), Kickstater(클라우드 펀딩) 등
수익모델	고객 접점을 금융회사가 주도	고객 접점을 비금융회사가 주도
개념도	자금공급자 - 금융회사 - 자금수요자	자금공급자 - 플랫폼 - 자금수요자
비고	PC 기반	모바일 기반

출처 : Ernst&Young,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 본부

▶ **【관련 법】** 한국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을 기반으로 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금융업법 체계 하에서 규제 요건(인·허가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성향이 있음

【핀테크 관련 주요 규제 법률】

구분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간편결제, 간편송금, 금융보안·비대면 인증 등 금융SW 개발
은행업법	인터넷 전문은행
자본시장법	클라우드펀딩, 로보어드바이저
보험업법(인슈테크), 외국환거래법(소액 외화 이체), 신용정보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분석, 빅데이터 개발) 등	

2. 유형

▶ **【유형】** 핀테크는 간편결제·송금, P2P 대출, 크라우드펀딩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포함하며, 기술의 발전으로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 (사업영역) 핀테크 사업 영역은 ① 금융플랫폼, ② 금융데이터 분석, ③ 결제·송금, ④ 금융 소프트웨어 등 4개 분야로 분류 가능

* 핀테크 유형 구분은 분석 기관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며, KPMG에서는 ① 네오뱅크, ② 결제 및 송금, ③ 자금조달 및 대출, ④ 자산관리, ⑤ 인슈테크, ⑥ 테크핀으로 구분

【핀테크의 분류】

구분	내용	주요 서비스 분야	대표업체
금융플랫폼	기업과 고객들이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거래 기반을 제공	P2P대출	렌딧
		크라우드 펀딩	와디즈
금융데이터 분석	개인·기업 고객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자산관리	뱅크샐러드
		인슈테크	보맵
결제·송금	이용이 간편하면서도 수수료가 저렴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편의성 제공	간편결제	삼성페이
		간편송금	토스
		외화송금	-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금융소프트웨어	IT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금융업무 및 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	비대면 인증, 블록체인, 리스크관리 등	-

출처 : 핀테크 주요 트렌드 및 시사점(금융감독원, 2018.5)

- (사업영역 확대) 핀테크 도입 초기에는 간편결제·송금 및 P2P 대출에 대한 투자가 활발했으나, 최근에는 레그테크(RegTech)*, 인슈테크(InsurTech)** 및 프롭테크(PropTech)*** 등의 창업과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레그테크 : 규제와 기술의 합성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법규 준수를 지원

** 인슈테크 : 보험과 기술의 합성어,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기존 보험 산업을 혁신

*** 프롭테크 : 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첨단 기술을 접목시킨 부동산 서비스 산업

3. 특징

▶ **【신생기업 주도】**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이 사업 아이디어를 서비스로 구현하여 금융 분야에 진출

- 기존 오프라인 금융회사들이 ICT로 무장하고 영업하는 것은 오프라인 영업의 핀테크 보완이며, 기술을 도입한 금융회사를 핀테크 기업이라 부르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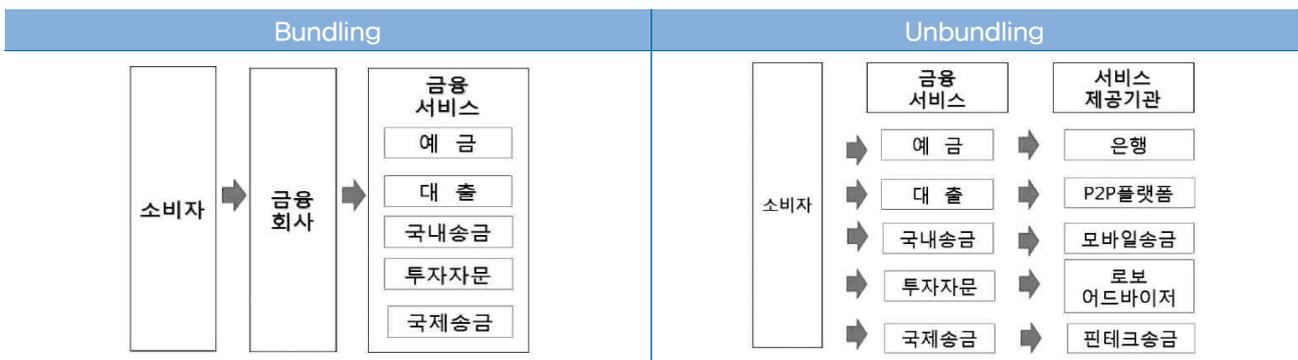
* 핀테크는 혁신 주체에 따라 ① 금융회사가 혁신 주체일 때는 핀테크, ② 테크(IT회사 등) 회사가 혁신 주체일 때는 테크핀으로 분류하기도 함

▶ **【언번들링(Unbundling)】** 대형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묶음(Bundle) 식으로 제공하던 복합적 기능을 분해해 전문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 높은 부가가치를 전달

- 결제 및 송금, 인터넷 은행, 금융관리, 보험, 대출 및 투자 등 각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분야별로 시장을 형성

* 향후에는 언번들링을 통해 특화된 서비스로 고객을 유치한 후,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여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두 제공하는 리번들링(Rebundling) 전략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

【핀테크의 분류】



출처 : 한국은행(2017), 핀테크 확산이 금융부문에 미칠 영향과 감사 시사점(감사원, 2017)

▶ **【수익 모델】** 핵심 비즈니스를 통해 모집한 고객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확장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

-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까지 VC 등으로부터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투자를 받지 못한 기업은 수익 악화에 따라 기업 생존의 문제에 직면함

4. 등장 배경

▶【등장 배경】 금융위기, ICT 발전과 모바일의 급속한 확산, 금융소비자의 라이프 패턴 변화, 각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규제 해제 등에 따라 핀테크 산업이 금융 산업의 혁신대안으로 부상

- 언제나 인터넷에 접근 가능한 환경, 규제 완화, 신흥국에서의 립프로그 (Leapfrogging)* 현상 등에 따라 핀테크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기술의 진보와 수용, 확산에서 기초부터 꾸준히 발전하는 것이 아닌, 중간의 여러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고도화 국면에 진입하는 현상으로 통신망이 취약한 아프리카에서 무선 전화 보급률이 유선전화의 보급률을 역전한 현상, 신용카드 결제 기반이 약하고 현금 사용 비중이 높은 중국이 세계 최대 간편결제 시장으로 급부상한 현상 등이 있음

【핀테크 등장 및 성장 배경】

구분	내용
금융위기	금융위기 이후 기존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한계를 절감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핀테크를 주목
모바일 기술	많은 상업 거래가 모바일로 전환됨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 거래 수요 증가
화폐 개념의 변화	물리적 실체를 교환하던 것에서 전자 데이터 상의 수치를 전송하는 것으로 화폐 개념이 변화
빅데이터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처리가 불가능했던 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모색
개별화 금융 서비스 요구	금융 상품의 복잡도가 증가하면서 금융 소비자 개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
금융 규제 완화	선진국에서 먼저 핀테크 서비스가 등장하자 국내에서도 핀테크에 대한 규제 완화 추진
금융 생산성 향상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저비용 실시간으로 서비스 제공 가능
금융 롱테일	기존의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소액 금융과 소액 대출에 대한 서비스 가능
데이터 수익 창출	광고나 3자에 대한 데이터 판매 등을 틈새 수익 창출 가능
금융사기 예방	금융 데이터에 대한 보호가 중요해짐
금융인프라 교체	P2P 네트워크나 비트코인 등 기존의 금융 인프라 외의 새로운 인프라 등장
금융기관 이탈	P2P 대출 등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등장으로 기존의 금융기관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하거나 기존 소비자의 금융기관 이탈을 촉발

출처 : 신기술과 산업 지형의 변화 ③ 핀테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part.



02 ⇌

Ⅱ . 유형별 핀테크 산업

1. 간편송금 및 결제
2. 클라우드 펀딩
3. P2P 대출
4. 인터넷 전문은행
5. 자산관리
6. 레그테크
7. 인슈테크

II 유형별 핀테크 산업

1. 간편송금 및 결제

▶ **【개념】** 간편송금 서비스는 미리 충전한 선불금을 전화번호 등을 통해 송금하는 서비스이며, 간편결제 서비스는 카드 정보를 모바일기기에 저장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함

- **(결제방식)** 간편결제 서비스의 특징은 기존 공인인증서나 OTP, 카드정보 등 여러 가지를 입력해야 했던 복잡한 과정을 축소하여, 결제비밀번호나 지문 인식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가 이루어짐

【결제방식 비교】



출처 : 한국은행,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 본부

▶ **【비즈니스 모델】** 간편결제·송금 서비스는 수익성이 거의 없으며, 해당 서비스로 유저들을 모아 다른 부문에서 수익을 올리는 수단으로 이용

- **(간편결제)** 단순 지급결제 수수료만으로는 수익 창출이 어려우며, 소비자 구매 데이터를 활용한 '타겟팅(Targeting) 광고'를 통해 광고 수익 창출
- **(간편송금)** 간편송금은 대부분 수수료가 무료로, 핀테크 업체들은 송금 건당 은행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지속적인 손실 발생

* 토스의 2018년 은행지급 수수료는 616억원으로 전체 영업비용의 62% 차지

▶ **【국내 간편결제·송금 시장】** 모바일지갑과 간편 결제 어플리케이션의 등장으로 미국 Venmo, 한국 토스처럼 간편한 계좌이체를 제공하는 P2P 간편송금이 대중적인 서비스로 성장하고 있음

- (간편결제) 2018년 국내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실적(일평균)은 392만건, 1,26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87.5%, 86.2% 증가하였으며, 금융권, 유통기업, 플랫폼, 스마트폰 제조사 등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음

【간편결제 서비스 사용 경험】



출처 : KTB 투자증권

- (간편송금) 2018년 국내 간편송금서비스 이용실적(일평균)은 141만건, 1,045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02.5%, 194.1% 증가하였으며, 카카오페이와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양분하고 있음

【간편송금 서비스 사용 경험】



출처 : KTB 투자증권

▶ **【해외송금 시장】** 신생 핀테크 업체들이 글로벌 송금 통신망인 스위프트(SWIFT)가 독점해온 해외송금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음

- (기존) 해외 송금은 『송금은행-중개은행-수취은행』 단계를 거치며 국제 은행간 결제 시스템인 스위프트(SWIFT)*를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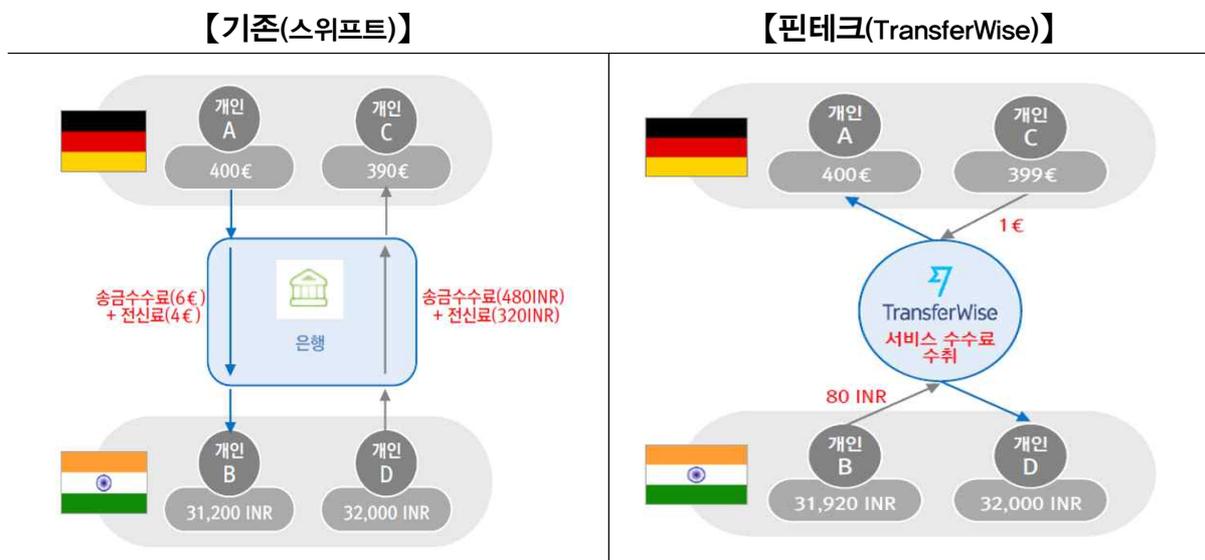
* 스위프트(국제은행간통신협회) : 전 세계 200여 개국, 약 1만 1000개 금융사가 회원으로 가입

- (핀테크) 핀테크 업체는 풀링(Pooling)*, 프리펀딩(Pre-funding)**, 페어링(Pairing)*** 등 다양한 기법으로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송금이 가능

* Pooling : 일정기간 송금 수요를 묶어서 한 번에 송금하여 개인별 수수료 절감

** Pre-Funding : 송금 업체가 외국 제휴기관에 사전에 자금을 예치하여 수요발생 시 활용

*** Pairing : 송금인과 수취인을 직접 연결하여 국내와 해외 송금 수요를 매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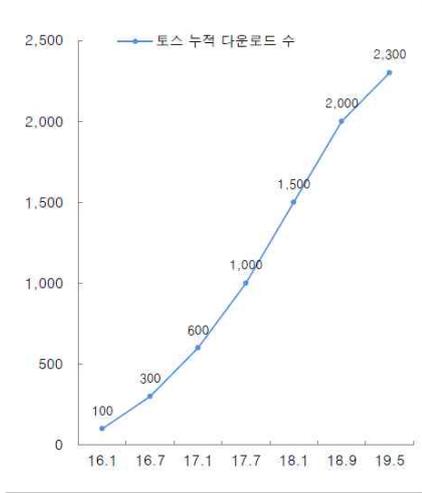
출처 : TransferWise,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 본부

↳ **【Case-Study】** (주)비바리퍼블리카(토스)

설립일	2013.4.23	대표자	이승건
기업가치	2.7조원	핀테크 분야	간편송금/지급결제

- 2015년 2월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출시했으며, 현재 간편송금, 금융 현황 조회, 금융 상품 개설,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금융플랫폼으로 성장
- 2017년 11월 KPMG와 H2 Ventures에서 선정하는 『2017년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중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35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2018년에는 28위로 선정
- 2019년 초 보험 대리점업을 시작하고, 향후 증권사 설립에 대한 방침을 발표하였으며, 인터넷전문은행업 예비인가를 준비 중
- 최근에는 Aspex Management 등으로 부터 770억원을 투자유치 하는 등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3천억원이며, 기업 가치는 2.7조원으로 평가

【빠르게 증가하는 토스 유저 수】



【토스 주요 서비스와 제휴 업체】

주요 항목	서비스 내용	제휴 업체
보험	내보험 조회, 자동차 보험료 조회	삼성화재, Chubb, Lifeplanet
투자	부동산 소액 투자, 펀드 소액 투자, 해외 주식 투자 등	신한금융투자, 8퍼센트, HonestFund, TeraFunding, 투게더펀딩
뱅킹	적금개설, 모임 통장, 비상금 모으기 등	수협은행,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대출	신용등급 조회, 대출 맞춤추천	코리아크레딧뷰, 하나은행, Citi은행, 대신저축은행, 유진저축은행 등
편의 기능	내 부동산 시세조회, 내 차 시세 조회, 터치페이 등	KB부동산, 하나은행 등

출처 :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 본부

2. 클라우드 펀딩

↳ **【개념】** 창의적 아이템을 가진 초기 기업가를 비롯한 자금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

- **(역할)** 클라우드 펀딩은 스타트업 기업의 효율적인 자금조달 수단이며, 회사는 개인들을 회사 제품의 생산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홍보효과와 함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음

* 한국은 2016년 1월부터 자본시장법에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 조항이 신설되어 본격적인 투자형 클라우드 펀딩 시작

【클라우드펀딩】



출처 : CrowdNet

↳ **【구성】** 투자자, 발행인, 온라인중개업자 등으로 시장이 형성

- **(투자자)** 누구나 투자자가 될 수 있으나, 투자자의 전문성, 위험감수능력에 따라 투자 한도를 차등화 적용

* (일반) 기업당 5백만원, 총 1천만원 (적격) 기업당 1천만원, 총 2천만원 (전문) 제한 없음

- **(발행인)**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발행한도는 업체당 15억원

* 다만,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유형)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제외

- **(온라인중개업자)** 고객 자산을 직접 수탁하거나 운용하지 않고 발행인과 투자자 사이에서 증권외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해 중개하는 역할 수행

* 투자자를 보호, 시장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 필요

↳ **【분류】** 후원·기부형, 증권(투자)형, 대출형

- **(후원·기부형)** 새로운 상품을 발명한 사업가나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예술가 등이 인터넷에 사업을 게시하고 후원을 받는 방식
 - * 기본적으로 투자에 대한 보상 의무는 없지만, 일정 금액 이상 투자 시 보상을 해주는 경향이 보편화되어 있음
- **(증권형)** 벤처기업 등이 자신의 사업 목표를 제시하고 비상장 공모주를 발행
 - * 공모를 진행할 수 있는 주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에서는 불법성이 있었으나, '15.7.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옴
- **(대출형)** 소액 대출을 통해 개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자금을 지원받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P2P금융*이라고도 함
 - * P2P금융은 P.18 참고

【후원·기부형, 증권형, 대출형 차이점】

구분	자금모집방식	보상방식	주요사례
후원·기부형	후원금, 기부금 납입	무상 또는 비금전적 보상	문화·예술·복지, 아이디어 상품
대출형	대출계약	유상(이자 등)	자금이 필요한 개인, 사업자
증권형(투자형)	증권(주식, 채권)	증권발행 교부, 유상배당금, 이자 등)	창업 초기기업

출처 : CrowdNet

↳ **【위험 요소】** 불완전 정보 제공, 프로젝트 실패 등 투자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불완전 정보 제공)** 중개업자가 자금 모집에만 집중해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 * 중개업자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하려는 기업에 대한 상세한 투자정보를 제공해야 함
 - * '18년 만기가 지난 크라우드펀딩 채권 88건 중 27건 투자 손실 발생
- **(투자자 보호 미흡)** 펀딩에 성공한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사업자가 중간에 잠적하더라도 펀딩을 중개해주는 플랫폼에는 책임이 없음
 - * 리워드형 펀딩은 제품의 낮은 품질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크라우드 펀딩을 과대·과장 광고의 창구로 이용하는 사례도 발생

↳【Case-Study】 와디즈플랫폼(주)(와디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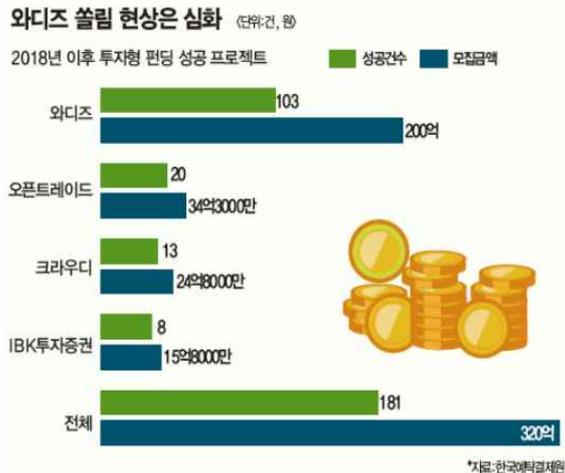
설립일	2012.5.11	대표자	최동철
기업가치	미공개	핀테크 분야	클라우드 펀딩

- 국내 최대 규모의 증권형 클라우드펀딩 회사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제도 시행 후 금융위원회에 1호로 클라우드 펀딩 제공 업체로 등록
- 모금 주체의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모아 산출한 소셜신용지수 등급을 활용하여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스타트업과 창업자들에게도 자금 확보 기회 제공
 - * 소셜신용지수가 높을수록 수수료를 낮춰주는 등 대안적 금융으로서의 역할 표방
- 투자자들이 상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분류를 체계화하여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펀딩상품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자들 중심의 플랫폼을 개발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며, 최근에는 디에스자산운용 등으로부터 31023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유치하는 등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475억원임

【클라우드 펀딩 성공 현황】



【2018년 이후 투자형 펀딩 성공프로젝트】



출처 : 한국예탁결제원, 매일경제(' 19.2.15)

3. P2P 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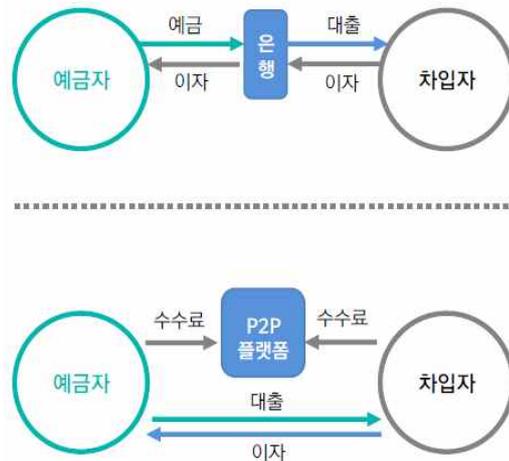
↳ **【개념】** 기업이나 개인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 서비스

- (은행) 고객으로부터 예·적금 조달을 통해 수요자에게 대출해주며, ‘예대마진’을 통해 수익 창출
- (P2P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하여 수요자가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며, 지점운영비용, 인건비 등의 경비를 최소화함으로써 대출자에게는 낮은 금리, 투자자에게는 높은 수익을 제공
 - * 대출 중개 플랫폼은 지점망 비용이 없고, 예금 조달이 필요 없으며, 인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비용에서 기존 은행 대비 우위가 있음
 - * 신용평가지 빅데이터와 AI를 이용해 시중 은행에서 소외된 차입자에게 대출 기회 제공 (ex. 알리페이의 즈마신용은 신용기록, 약속이행 능력, 행동습관, 신분특징, 인맥관계 등으로 신용을 평가)

【은행과 대출중개 플랫폼 비교】

항목	은행	P2P 플랫폼
레버리지	O	X
유동성 변화	O	X
만기 변환	O	X
매칭	X	1 to n
차입자 정보공유	X	O
위험 보유	O	X
신용 할당	O	△
자산 관리	X	O
서비스 채널	둘 다	비대면만
주요 수익원천	순이자마진	수수료

【기존 금융권 vs P2P 대출 구조 비교】



출처 :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 본부

↳ **【비즈니스 모델】** 차입자에게는 대출 승인 수수료(origination fee)를 투자자에게는 대출 관리 수수료(servicing & management fee)를 부과

- **(목표시장)** 주로 중금리 중신용 대출자를 대상으로 제 1금융권과 제 2, 3금융권 사이에서 대출처를 선택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대출을 실행
- **(투자상품)** 초기에는 개인 신용대출로 한정되었지만, 부동산 담보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소상공인 대출 등 다양한 상품으로 투자범위가 확장
 - * 상품의 예상수익률, 위험성 등을 고려해 투자자가 투자 상품을 직접 선택

【P2P 투자상품의 종류】

구분	개인채권 투자	기업/사업 투자	부동산 파이낸싱 투자
주요 내용	· 대출을 받고 싶은 개인에게 투자하는 상품으로 학생, 직장인, 개인사업자 등 고객수요층이 다양 · 자금상황, 소득, 신용정보, 연체정보 등이 공개되어 이를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	· 기업이 회사의 자산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 · 개인투자에 비해 상환기간이 짧아 자금회전율이 높음	· 건축될 부동산을 담보로 투자자를 모집 · 타 P2P 대비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높음
대표 업체	· 8퍼센트, 렌딧, 어니스트펀드	· 팝펀딩, 펀다	· 테라펀딩

출처 : TDB 기술 보고서

↳ **【P2P 금융 위험】** 대출중개시장은 그림자 금융으로 분류되며, P2P 투자상품은 ‘중수익, 중위험’ 상품으로 투자자의 주의를 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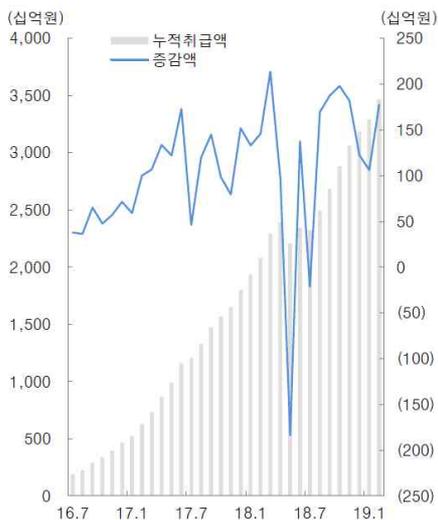
- *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은 일반적으로 은행시스템 밖에서 은행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신용중개(비은행 금융중개)에 관여하는 기관 및 활동을 통칭
- **(수익성 악화)** 차입자와 투자자 유치 과정에서 과도한 프로모션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위험 존재
- **(플랫폼 실패)** 대출중개 플랫폼은 투자자를 대신해 채무상환 내용을 관리하고 있으나, 플랫폼이 실패할 경우 차입자는 상환 의무에 소홀해지고 투자자는 채권회수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 발생
- **(도덕적 해이)** 플랫폼은 신용위험을 떠안지 않아 이를 제대로 평가할 유인이 낮으며, 투자자는 플랫폼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해야 함

↳【Case-Study】 (주)렌딧

설립일	2015.3.25	대표자	김성준
기업가치	미공개	핀테크 분야	P2P 금융

- 2015년 3월 설립된 P2P 금융서비스 기업으로 '기술에 금융을 담는다'는 비전 아래 모든 서비스를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로 개발해 제공 중
- 자체 개발한 심사평가 모델(Lendit Scoring System)을 기반으로 모든 대출자에게 개인화된 적정 금리를 산출해 최저 4.5%, 평균 10% 안팎의 중금리로 대출
- 대출자와 투자자를 매칭하기 위해 정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실시간 분산 투자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음
- 최근에는 옐로우독, 콜라보레이티브 펀드, 알토스벤처드 등으로부터 7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하는 등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243.5억원임

【국내 P2P대출 취급액】



【렌딧 시장 점유율】



출처 : 한국 P2P 금융협회,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 본부, 렌딧

4. 인터넷 전문은행

▶ **【개념】** 은행 산업 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 인가된 은행으로, 기존 대형 은행과는 차별화된 채널을 운용하거나 모바일 등 디지털 경험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둔 인터넷 전문은행

- **(역할)** 혁신 서비스로 금융소비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
 - * 인터넷 전문은행을 챌린저 은행(Challenger Bank), 네오뱅크(Neo Bank) 라고 부르기도 함
 - * 오프라인 지점을 보유하지 않으며,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기존 소매, 상업 은행에서 소외된 소비자가 원하는 부가가치 제공
- **(경쟁력)** 기존 은행 대비 실물 지점 비용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부터 출시까지 간소화된 절차 등으로 전반적인 비용 절감 가능
 - * 복잡한 인증절차가 필요 없고, 스마트폰에서 바로 계좌 개설, 대출 신청, 투자 자문 가능
- **(수익모델)** 기존 은행과 동일한 예대마진 위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비즈니스 다변화가 필요하며, 유저를 확보하고자 매우 낮은 수수료를 유지하고 있어 수익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됨

▶ **【국내 도입】** 미국·유럽은 1990년대, 일본은 2000년대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된 반면, 국내에서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2017년부터 본격적인 영업 시작

- **(경과)** 2008년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금융실명제법 및 은산분리 규제 등으로 무산되었으며, 2014년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논의를 본격화하고 2017년에 최초 도입
- **(영향)** 사실상 독과점 시장이었던 은행산업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가 신규 진입함으로써 핀테크 기반 디지털 금융 경쟁이 가속화 되는 등 은행산업 전반에 변화와 혁신이 가능해짐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보편화, 중금리 대출 실적 개선 등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 및 수수료, 접근성 측면에서 소비자 효용의 증대 · 비용 절감에 의한 경영성과 개선 · 신상품 개발의 촉진, 은행 간 경쟁 촉진 · 은행간 서비스 차별화다양화 촉진 · 인터넷 뱅킹 등 금융기술 발전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 확대에 따른 과잉공급 가능성 · 설립 초기에 수익모델 취약 시 부실화 우려 · 과다 경쟁으로 수익성 저하 · 은행 산업의 신인도 하락 소지

출처 : 핀테크 혁신 최전선 인터넷전문은행, 핫잔 속 태풍 넘어 성공 이어가려면, MK뉴스, 2019.4.11

▶【최근 이슈】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 및 제3, 4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추진

- (규제 완화) 2019년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으로 혁신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 한도를 34%까지로 완화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하는 법으로 기존의 은행법에서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의 한도는 4%로 제한되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정보통신업 비중이 50% 이상인 ICT 비금융주력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34%까지 가능

- (제3 인터넷 은행) 인가를 위해서는 자본금 및 자본조달의 안정성,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등 은행법령상 인가 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

* '19.5월 2차 인가심사 :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는 각각 혁신성, 자본조달능력 문제로 심사 탈락

* '19.10월 3차 예비인가 심사에는 3개(소스스마트뱅크, 토스뱅크, 패밀리아스마트뱅크) 컨소시엄이 신청

【국내·외 주요 인터넷은행 리스트】

출시	은행명	국가	출시	은행명	국가
2013	Moven	미국	2017	FINN	미국
	Simple	미국		Monzo Bank	영국
	Monese	영국		Starling Bank	영국
	Tandem Bank	영국		EQ Bank	캐나다
	N26	독일		Simplii	캐나다
	Hello Bank	프랑스		Volt	호주
2014	Soon Banque	프랑스		Flynt	스위스
	Go Bank	미국		Kakao Bank	한국
	OakNorth	영국		K-Bank	한국
	Compte nickel	프랑스		Suning Bank	중국
	KOHO	캐나다		Paytm Payments	인도네시아
2015	Nubank	브라질		KOKO	대만
	BankMobile	영국		O Bank	대만
	Rebolut	영국		Jenius	인도네시아
	Neat	홍콩	Pepper	이스라엘	
	Lunarway	덴마크	Agibank	브라질	
	Baixin Bank	중국	Banco Lnter	브라질	
	MYbank	중국	ALAT	나이지리아	
	WeBank	중국	Liv	UAE	
	Tyme Digital	남아공, 인도네시아	New	UAE	
	Touch Bank	러시아	Bo	영국	
2016	Sun Trust Bank	나이지리아	Xinja	호주	
	iam Bank	미국	OCTO	베트남	
	Marcus	미국	Next	브라질	
	Atom Bank	영국	Kudimoney	나이지리아	
	Imagin Bank	스페인	Bank Zero	남아공	
	Richart	대만	Discovery	남아공	
	MOMO	베트남	Zazu	잠비아	
	TIMO	베트남	TMRW	태국	
	CBD NOW	UAE	Virtual Bank	홍콩	
	KB	캄보디아			
DBS digibank	인도네시아				

출처 :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 본부

↳【Case-Study】 한국카카오은행(주)(카카오뱅크)

설립일	2016.1.22	대표자	이용우
기업가치	미공개	핀테크 분야	인터넷 전문은행

- 한국카카오은행(주)(카카오뱅크)은 2017.4.5일 인터넷 전문은행 은행업 본인가를 취득하여, 2017.7.27일 영업을 시작
- 인터넷 전문은행의 주 이용자인 20~30대에서 과반의 점유율을 획득한 것으로 평가(10~20대, 43%, 30대 42.8%, 전자신문('19.7.14))
 - 카카오뱅크의 모든 서비스를 모바일 앱 하나로 할 수 있도록 구성한 혁신적인 사용자 접근성
 - * 젊은 층에게 친숙한 카카오의 인기 캐릭터인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한 마케팅 등으로 '프렌즈 체크카드'는 800만장 이상 발급
- 높은 접근성과 적시 자본확충 등을 통한 활발한 영업으로 카카오뱅크는 후발주자이면서도 높은 시장점유 및 흑자 전환
 - * '20년부터 흑자를 낼 것'이란 전망과 달리 '19년 1분기에 66억원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
 - * 케이뱅크는 자본확충 문제로 '19.4월부터 신용대출 등을 중단한 상태

【카카오뱅크, K뱅크 영업현황 비교】



출처 : 카카오뱅크, K뱅크, KTB투자증권

5. 자산관리

▶ **【개념】**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동적으로 포트폴리오 자문·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

- **(기존)** 금융권의 프라이빗 बैं킹(Private Banking)은 개인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자산관리, 세금 및 회계자문, 투자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
- **(핀테크)** 스마트폰 사용자 위주로 개인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관리 서비스, 투자정보를 제공
 - * 금융시장 상황과 개인의 투자 성향, 자산 현황 등을 활용해 투자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및 리밸런싱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운용 가능

【기존 자산관리 서비스 vs 핀테크 자산관리 서비스】

구분	기존	핀테크
채널	오프라인 영업망을 통한 대면	PC, 모바일 기기
주 고객층	고액자산가	스마트폰 사용자
투자금액	High	Low
수수료	High	Low
이용시간	정규 업무시간	24시간 실시간 서비스
특징	전담인력에 의한 포괄적 자문	편리한 접근성, 자동화

출처 :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 본부

- **(발전)** 기존 자산관리서비스 모델에서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한 자동화, 온라인 플랫폼, 저비용의 대중화를 포함한 로보어드바이저로 진화

【자산관리서비스 발전 과정】

	전통적 자문	어음 할인 중개	온라인 투자 플랫폼	로보어드바이저
채널	 대면	 전화	 PC	 PC, 모바일
서비스	전용 상담자	전용 상담자	휴먼 어드바이저 채널 제한	완전한 디지털화(요구 시)
제공	포괄적 자문	포트폴리오 관리+자문	전통적 투자관리+최소 자문	투자 관리+자동재분배
대상 고객	최고액 순자산 보유자, 고액 자산가	고액자산가, 대중 부유층	제한없음	대중 부유층 등
거래수수료	HIGH	MEDIUM	LOW	LOW

출처 :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연구소,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 본부

▶ **【유형】** 투자자에게 자산구성 및 재구성 사항을 추천하고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는 '자문형'과 투자자로부터 전권을 부여받아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일임형'으로 구분

* 로봇(Robot)과 어드바이저(Advisor)의 합성어로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자산 관리 서비스

- 다수의 기존 금융기관들이 핀테크 업체와 제휴 및 인수를 통해 경쟁적으로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문가가 검증하여 투자에 적용하는 하이브리드형이 증가

【로보어드바이저의 종류】

구분	자문형	일임형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작성된 소프트웨어가 고객 맞춤형 포트폴리오 추천 및 투자 자문을 수행 · 상품 선택 및 운용은 고객이 직접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고리즘 기반 소프트웨어가 고객의 자산을 배분하고 직접 자산운용을 수행 · 계좌 개설 및 금융상품 구입과 운용을 로보어드바이저가 전담

출처 : TDB 기술 보고서

▶ **【성장 및 한계】** 미국에서는 2010년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시작된 반면, 국내에서는 2016년 초부터 증권사와 은행 등에서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을 출시

- (전망)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금융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며, 자산배분을 위한 알고리즘의 고도화 및 다양한 상품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제공 필요

【성장 원인과 한계】

성장	한계
세계적 저성장에 따른 전략적 자산 배분 필요	대부분의 로보어드바이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등장하여 위기 상황에서의 수익률 검증 부족
핀테크의 발전과 스타트업 진입	각 업체별로 다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 같은 성향의 투자자라도 천차만별의 포트폴리오가 구성되는 등 서비스의 신뢰성
낮은 수수료	투자 상품의 한계

출처 : 한국경제매거진 COVER STORY 제1067호, 2016.5.11

↳【Case-Study】 (주)레이니스트(뱅크샐러드)

설립일	2012.6.30	대표자	김태훈
기업가치	3,000억원	핀테크 분야	자산관리

- 2012년 6월 설립 후 개인맞춤형 카드추천 서비스인 ‘뱅크샐러드’ 웹 버전을 출시하였으며, 2017년 6월에는 ‘뱅크샐러드’ 모바일 앱을 출시
- 2019년 3월 기준, 다운로드 횟수 400만건, 가입자수 350만명이며 금융 상품 연동 관리금액은 87조원
- 가계부 서비스부터 금융비서(지출 분석), 통합 자산조회, 금융상품 추천, 신용조회 및 연금조회 서비스 제공
- 최근에는 인터베스트 등으로부터 45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유치하는 등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719억원이며, 기업가치는 3,000억원으로 평가받음

【뱅크샐러드 서비스】

<p>01</p> <p>통합 자산조회</p>  <p>공인인증서 연동으로 흩어진 내 은행 계좌는 물론, 카드/보험/주식/부동산/자동차 및 연금까지 한눈에 조회가능!</p>	<p>02</p> <p>자동 가계부</p>  <p>수입/지출/이체 내역이 자동으로 등록/분류되고 분석까지 한번에! PC가계부와 연동해 언제 어디서나!</p>	<p>03</p> <p>금융비서</p>  <p>지출현황 및 금융생활을 분석해 상황에 맞는 조언과 격려의 메시지도 보내드립니다!</p>	<p>04</p> <p>맞춤상품 추천</p>  <p>내 신용등급, 신용점수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고 카드/대출/보험 등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 추천까지!</p>
---	--	--	---

출처 : 뱅크샐러드

6. 레그테크

↳ **【개념】** 레그테크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 규제 사항에 대해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게 해주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 준법 감시 혹은 내부통제로 회사가 자발적으로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만든 제반 조치와 법령 준수 시스템을 의미

- (유형) 적용 대상에 따라 컴프테크(CompTech)*와 서프테크(SupTech)**로 분류

* 준법감시(Complianc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회사의 프로세스에 솔루션을 더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규제대응시스템

** 금융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최신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금융감독 업무 시스템

- (핀테크와의 관계) 레그테크는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핀테크의 발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파생된 전문영역

* 핀테크가 주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레그테크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제를 금융회사 프로세스에 내재화

【핀테크 vs 레그테크】



출처 : 금융보안원,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 본부

▶ **【등장 배경】** 국제 금융위기 이후 금융당국의 규제·감독이 강화되고 규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기업과 금융당국의 부담이 지속 증가

- **(필요성)** 새로운 금융 규제의 지속적인 도입, 정보보안 위협의 증가로 인해 높아진 컴플라이언스 비용의 절감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의 필요성이 높아짐
 - * 글로벌 금융회사는 매년 2,700억 달러의 규제대응 비용을 지출하며, 이중 레그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17년 4.8%에서 '22년 34.0%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KPMG, 2018)

【등장 배경】

배경	원인
금융IT 환경의 변화로 금융보안 관련 규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는 분산되어 있어 금융회사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우리나라 금융회사 보안담당자가 업무상 참고해야하는 법령, 규정, 지침, 가이드 등이 총 60종을 상회
금융당국의 감독대상 기관도 급증하여 관리·감독업무에 부담이 가중	'17년 기준 국내 취약점분석평가 대상 금융회사는 300곳이 넘으며, 전자금융업자도 '14년 67개사에서 '17.11월 104개로 증가
국외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도 영향을 받는 새로운 규제들이 국외에서 제정되고 있으며, 위반 시 막대한 벌금이 부과되는 등 부담이 증가	뉴욕주 사이버보안 규정('17.3월 시행),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17.6월 시행), GDPR('18.5월 시행)

출처 : 2018년 금융IT·보안 10대 이슈 전망 및 대응전략, 금융보안원

▶ **【국내 도입】** 국내에서는 2017년부터 레그테크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도입 초기 단계로 주로 자금세탁방지, 이상금융거래탐지 등에서 주로 활용

- **(외국환거래)**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12곳과 함께 레그테크를 활용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구축, 금융소비자와 은행직원 등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을 방지하겠다고 발표(2019.6월)
 - * 외국환거래는 거래 유형이 다양하고 법규가 복잡해 소비자나 은행 직원의 '의도치 않게' 법을 어기는 사례가 다수 발생 → 경고, 과태로, 형사처벌 등 불이익

【국내 레그테크 관련 기업 현황】

기업명	분야	솔루션
(주)유니타스	자금세탁방지	마약, 테러, 제재 등과 관련된 34개 변수를 실시간 반영한 '국가위험지수' 산출
(주)닉컴퍼니	핀테크 전문 컴플라이언스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위험지표화하여 시각화된 모니터링 기능 제공
(주)에임스	보험금 착오지급 점검	보험약관의 자동 알고리즘화 및 보험금 착오지급 자동 검출
(주)옥타솔루션	자금세탁방지	기상통화 취급업소, 해외송금업자, 전자금융업자 등에게 맞춤형 자금세탁방지 솔루션 제공
(주)코스콤	금융투자 컴플라이언스	레그테크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등 자본시장에 효율적인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플랫폼 구축
금융보안원	금융보안 점검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수준 자율진단, 금융보안 관련 보고서의 자동 생성, 리포팅 등

출처 :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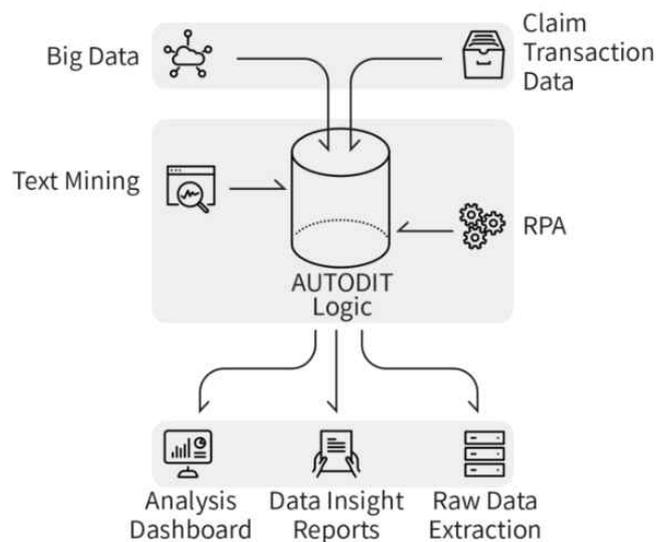
- **(기대효과)** 기업은 규제대응 업무 자동화로 규제준수 비용 및 위반 리스크가 감소하며, 금융당국은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하는 등 규제준수를 위한 사회적 비용절감

↳【Case-Study】 (주)에임스

설립일	2017.3.15	대표자	임종윤
기업가치	미공개	핀테크 분야	레그테크

- 금융감독 및 금융 소비자 보호 기관과 보험회사를 위한 레그테크 전문 기업으로 2017.3월 설립
- RPA(로봇 자동화 시스템)과 텍스트 마이닝 등의 기술을 접목시킨 솔루션 오토딧(Autodit)을 선보이고 있으며, 오토딧 솔루션은 PDF 파일로 된 보험사의 약관을 시스템에 업로드 하면 텍스트 마이닝 등으로 보험금을 계산하고, 알고리즘을 생성하는 시스템임
- 보험 신청 점검 담당자는 오토딧 솔루션을 통해 1차적인 지급 심사를 마친 후 세부적인 내역을 재검토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보험금 착오 지급을 방지할 수 있음
- 보험사는 연간 수백만 건에 달하는 손해사정 및 보험금 지급 업무 처리를 보다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며, 보험금 착오지급으로 인한 재무 손실 리스크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AUTOD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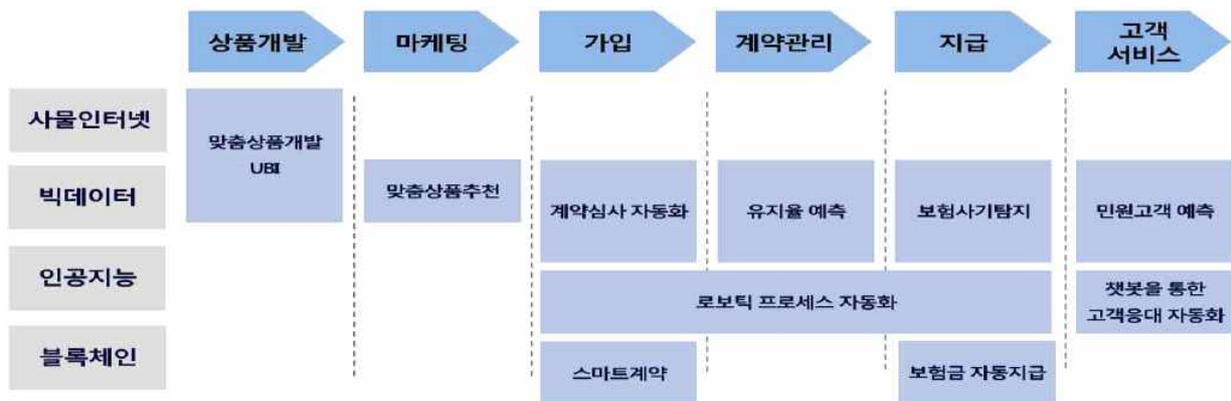
* 출처 : 에임스

7. 인슈테크

↳ **【개념】**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신기술을 이용해 보험 산업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

- **(적용 분야)**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을 활용해 보험금 청구 간소화, 고객 맞춤형 상품 추천 등 보험업무 각 분야(상품개발, 계약관리, 고객 서비스 등)에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 * 사물인터넷(IoT) 기술로 사용량기반 가격결정(Use-based Insurance, UBI) 등의 새로운 보험 상품이 나오고 있음
 - * 사후적인 금전적 손실의 보상 외에도 실시간 모니터링 및 경고 등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예방하는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업무도 수행

【인슈테크 적용 분야】



출처 : 금융감독원

- **(영역 확장)** 기존 보험사들의 영역인 연금, 손해보험, 생명보험 이외에도 P2P 보험* 등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면서 보험의 영역을 확장

* 보험사나 보험중개사가 개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자들이 서로를 보장해주는 손실 공유 형태의 상품으로 구성원은 적립금을 입금하고, 위험 평가, 지불 처리와 같은 보험 적용은 상호 관리

▶ **【기존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험 산업은 가격 결정과 상품설계 과정에서 불확정성이 높고, 보험 계약 체결의 많은 부분이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등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을 인슈테크를 통해 완화 가능

【인슈테크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구분	내용
보험사와 소비자의 연결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와의 의사소통의 더 빈번해지며,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변화 · 전통적인 판매채널을 대체보완하는 새로운 방식의 보험 판매 · 보험가입절차 및 보험금 지급심사 기간이 단축 · 소비자의 만족도 향상
데이터 중심의 의사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더라이팅, 가격결정, 보험금 지급심사에 다양한 데이터 사용 · 데이터를 분석하는 새로운 플랫폼 등장 ·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가능
새로운 유형의 상품 개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비용으로 맞춤형 보험 상품 개발이 가능 · 현대사회에 새롭게 발생하는 리스크를 보장하고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보험상품이 가능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보험사업 모델과 다른,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 가능 · 보험회사의 업무 영역 확대(사고예방 서비스 등)

출처 : Willis Towers Watson(2018), Quaterly InsurTech Briefing Q4 2017, 보험연구원

▶ **【국내 도입】** 국내에서는 2017년부터 보험보장내역 분석 및 간편청구 분야에서 인슈테크 스타트업이 등장하였으며, 기존 보험회사들도 신기술 도입을 진행 중

- (제한) 국내 보험 산업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제한이 있고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헬스케어도 의료법상 분쟁의 소지가 있어, 타 국가에 비해 신기술 도입이 활발하지 못함

【인슈테크 활용 현황】

회사	정보수집	내용
AIG생명	모바일 앱	설정된 운동량 목표치를 달성하면 SKT 통신요금, 커피쿠폰, 온라인 상품권 등의 혜택
흥국생명	모바일 앱	하루 평균걸음 7천보 이상이면 보험료의 7%, 1만보 이상이면 10%를 6개월마다 환급
DB손보, 삼성화재, KB손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T맵)	SKT T맵 내비게이션을 켜고 일정거리 이상 주행 시 T맵 안전운전 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일 경우 보험료 5~10% 할인
현대해상	텔레매틱스장치 (블루링크)	장치가 설치된 차량에 대해 보험료 7%를 할인하고 안전운전 요건 충족시 5% 추가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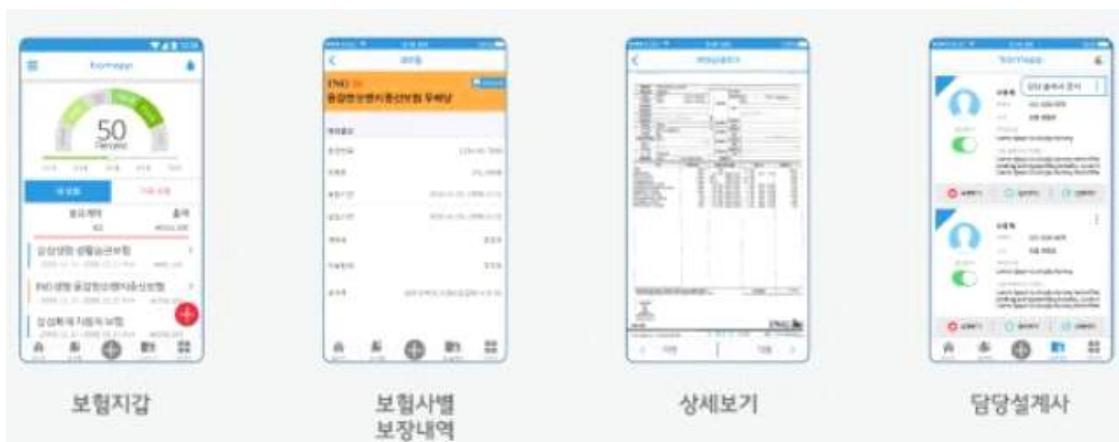
출처 : 금융감독원

↳【Case-Study】 (주)보맵

설립일	2015.11.23	대표자	류준우
기업가치	미공개	핀테크 분야	인슈테크

- 2015.11월 설립된 인슈테크 회사로, 보험사 어플리케이션을 일일이 설치할 필요 없는 보험사 통합 어플리케이션 '보맵(bomapp)'을 운영
- 2017.2월 보맵 보험가입자용 앱 출시, 3월 설계사용 앱 출시
- 흩어져 있는 보험을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각 보험사별 가입 내역과 보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항목별 보장 내용과 보상 금액도 파악 가능
- 보맵의 보상 전문가는 각 보험사의 상품별 약관 데이터, 고객 진단·분석 데이터, 발병률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진단과 분석을 제공하며, 쉽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기능도 갖추
- 최근에는 DS자산운용, KB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10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하는 등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130억원임

【보맵 서비스】



출처 : 보맵

part.



03 ⇨

Ⅲ. 국내·외 핀테크 동향

1. 국내 동향
2. 해외 동향
3.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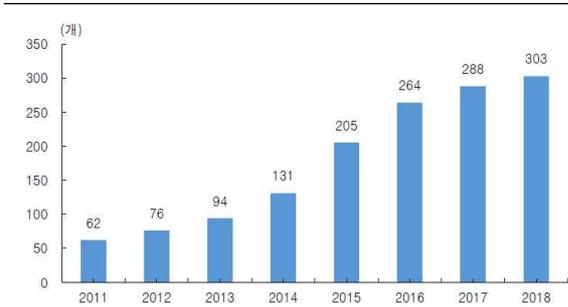
Ⅲ 국내·외 핀테크 동향

1. 국내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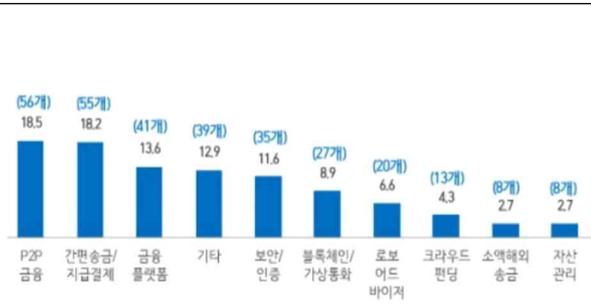
▶ **【핀테크 업체 현황】** 2018년 기준 국내 핀테크 기업은 약 300여개이며, 서비스 분야별로 P2P금융, 간편송금·지급결제 업체가 큰 비중을 차지함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2019-2021 핀테크』에서는 핀테크 기업을 549개, 그 중 중소기업이 493개사(89.8%)로 조사됨

【국내 핀테크 기업 수】



【2018년 핀테크 분야별 현황】



출처 : 한국핀테크협회, 한국투자증권, 2018 대한민국 핀테크 기업편람

▶ **【투자 동향】** 국내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는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18년 한해 24건 1.98억달러를 기록해 전 세계 투자유치(1,996건, 403억달러)의 약 0.5%(금액기준) 비중*을 차지

* 전 세계 대비 투자 비중 추이(%) : ('14) 0.06 → ('15) 0.1 → ('16) 0.3 → ('17) 0.7 → ('18) 0.5

- (기대수준 증가) 건당 투자유치 금액의 평균값, 중앙값이 지속 증가한 것은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

【국내 핀테크 기업 투자유치 동향】



【국내 핀테크 기업 건당 투자유치 금액】



출처 : CB Insight('19.3.20), 한국무역협회(Trade Brief, '19.4.10)

▶ **【시장 성숙도】** 한국의 핀테크 도입지수는 '17년 32%에서 '19년 67%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27개 조사국 중 13번째 수준

- (내용) 미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은 발달된 금융 인프라와 금융 규제가 핀테크 활성화에 제약이 있는 반면,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은 취약한 금융 인프라의 대안으로 핀테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

*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Ernst & Young은 '15년부터 격년별로 핀테크 도입 지수를 조사

- 내용 : 최근 6개월간 2개 이상의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
- 대상 : '15년 6개국 1만명, '17년 20개국 2.2만명, '19년 27개국 2.7만명

* 다만, Ernst & Young의 도입률은 일회성 사용과 지속적 사용을 구분하지 못하며 기존 금융회사가 IT 기술을 이미 충분히 적용하고 있는 경우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음

【2017, 2019 핀테크 도입지수】

2017			2019		
순위	국가	핀테크 도입지수	순위	국가	핀테크 도입지수
1	중국	69	1	중국	87
2	인도	52		인도	87
3	영국	42	3	러시아	82
4	브라질	40		남아프리카공화국	82
5	호주	37	5	네덜란드	73
	스페인	37		아르헨티나	72
7	멕시코	36	6	브라질	72
8	독일	35		칠레	72
	남아공	35		멕시코	72
10	미국	33		페루	72
11	홍콩	32	11	아일랜드	71
	한국	32		영국	71
13	스위스	30	13	한국	67
14	프랑스	27		홍콩	67
	네덜란드	27		싱가포르	67
16	아일랜드	26	16	독일	64
17	싱가포르	23		스웨덴	64
18	캐나다	18		스위스	64
19	일본	14		호주	58
20	벨기에	13	20	스페인	56
			21	이탈리아	51
			22	캐나다	50
			23	미국	46
			24	벨기에 · 룩셈부르크	42
			25	콜롬비아	36
			26	프랑스	35
			27	일본	34

* 출처 : Ernst&Young

▶ **【주요 정책】** 국내 핀테크 산업은 시작 단계이며 2015년부터 『IT·금융 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핀테크 육성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음

- (규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사전적 규제인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을 적용 중

*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 분야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는 초기 시장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 구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국내 주요 정책】

구분	내용
2015.03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2015.07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금산 분리 완화
2015.11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16년 하반기 분인가)
2016.06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시행
2017.03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 발표
2018.02	P2P 투자한도 완화
2018.03	테스트베드 본격 시행
2019.04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출처 :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 본부

- (금융규제 샌드박스) 금융 산업의 경우 규제수준이 높아 혁신금융서비스 출현에 어려운 점이 있어 영국, 호주 등 금융선진국이 운영 중인 샌드박스를 도입

* '18.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 → '18.12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국회통과 → '19.4월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19.10월까지 총 53건 선정)

* 새롭고 소비자편익이 큰 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를 최대 4년 동안 적용을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는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

기업명	혁신금융서비스	서비스 내용
레이니스트	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	특정 기간 내에 해외여행자보험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재가입시에는 보험업법에 따른 설명 및 공인인증 없이 간편하게 보험 가입
루트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지역주민과 국민들이 투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P2P금융 서비스
비바리퍼블리카	대출 확정금리 간편 조회, 신청 서비스	금융회사들이 제공하는 대출 상품의 개인별 확정금리를 토스 앱에서 확인하고, 선호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대출 신청까지 간편하게 진행

출처 : 금융위원회

▶ **【최신 이슈】**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금융업법)’ 통과('19.10.31)로 새로운 금융업 탄생 및 P2P금융 활성화가 기대됨

- (개요) P2P금융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안 통과로 P2P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구축

【P2P 금융 규율 관련 주요 경과】

구분	내용
2017.02.27	· ‘투자자 보호’와 ‘핀테크 성장’이라는 정책목표 조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규율체계인 ‘가이드라인’ 시행 · 2차례 가이드라인 개정(1차 '18.2.27, 2차 '19.1.1)으로 공시 강화, 상환금 분리보관, 자금돌려 막기 등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2017~2018	· P2P금융 관련 다수의 법안 발의, 온라인대출중개업법('17.7월 민병두), 온라인대출거래업법('18.2월 김수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8.4월 이진복), 대부업법('18.2월 박광온), 자본시장법('18.8월 박선숙)
2019.08.22	· 의원 입법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2019.10.24	·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2019.10.31	· 본회의 통과

출처 : 금융위원회

- (주요 내용) 금융위 감독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진입 제도, 영업 행위 규제, 투자자·차입자 보호 등

* P2P금융사들은 개별 대출 상품의 20%까지 자기자본 투자가 가능해지며, 기관 투자자도 연계 대출 모집 금액의 40%까지 투자 가능

【법률안 주요내용】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진입제도	· P2P 업체 금융위 의무 등록 · 최소 자기자본 5억원 이상	투자자 보호	· 투자금 등 분리보관 의무 · 차입자·수익률·추심절차 등 제공
영업행위 규제	· 수수료 포함 법정 최고금리로 제한 · P2P업체·대주주 연계대출 금지	투자·대출한도	· 연계대출 잔액의 10%로 제한 · 투자목적·재산 등에 따른 투자한도 도입

출처 : 금융위원회

【시행령 주요 위임사항】

주요 내용	
① 최소 자본금	⑥ 광고 준수사항
② P2P업체 자기자본 투자 요건	⑦ 대출한도
③ 최고금리 산정시 제외되는 비용	⑧ 투자한도
④ P2P업체의 업무 범위 및 위탁 불가능 업무	⑨ 금융기관 등의 P2P 투자 참여
⑤ 경영업무 범위	⑩ 협회 업무 범위

출처 : 금융위원회

- (향후 계획) 내년 하반기 법 시행(공포 후 9개월)에 맞춰 시행령 및 감독규정 구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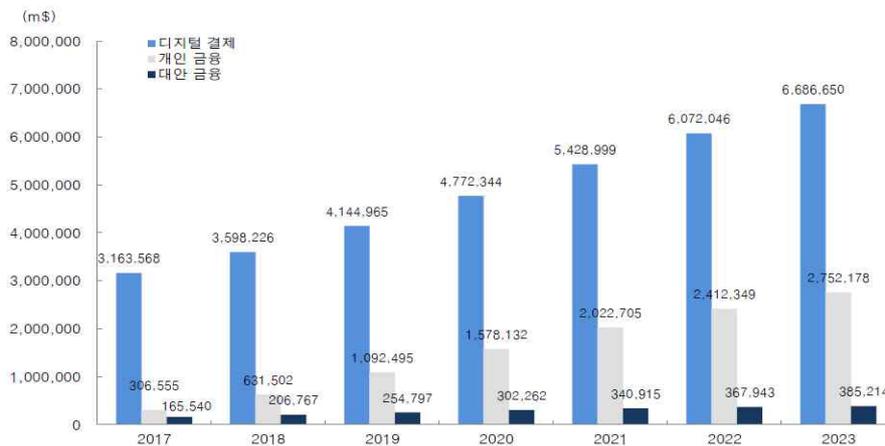
* 일정(잠정) : (11월 중) 법 공포 → (12월 중) 하위법규 입법예고, 부처협의 → ('20.1월) 규제위 심사 → ('20.4월) 법제처 심사 → ('20.6월) 하위법규 공포

2. 해외 동향

▶ **【시장규모】** 글로벌 핀테크 거래금액(디지털 결제+개인금융+대안금융)은 2017년 3조 6,356억 달러에서 2023년 9조 8,240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Statista, 2019)

- (매출) 전 세계 핀테크 업체 매출은 2017년 1,200억 달러에서 2025년에 2,65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UBS, 2018)
- (투자) 핀테크 투자 규모는 2013년에 189억 달러에서 2015년 671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2018년에는 1,118억 달러로 확대(KPMG,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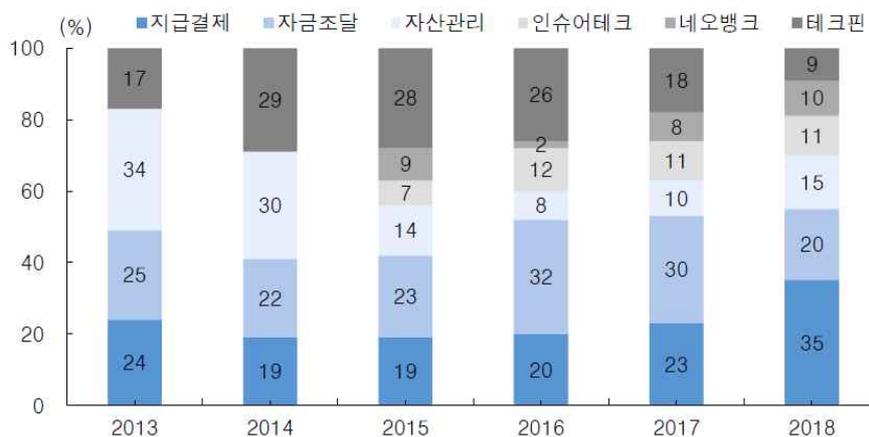
【글로벌 핀테크 거래규모】



출처 : Ernst&Young,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 본부

- (투자 분야) 지급결제 분야는 소비자의 요구가 가장 큰 영역으로 투자 증가

【글로벌 핀테크 선도 분야 추이】



출처 : KPMG, 한국투자증권

▶ **【글로벌 핀테크 100대 기업】** 미국, 영국, 호주 등 영·미권 국가에서 핀테크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짐

- (분포) 총 36개국, 100개사 중 41개사는 신흥시장에서 설립되고 운영

* 한국 기업은 비바리퍼블리카(토스) 28위, 데일리금융그룹 63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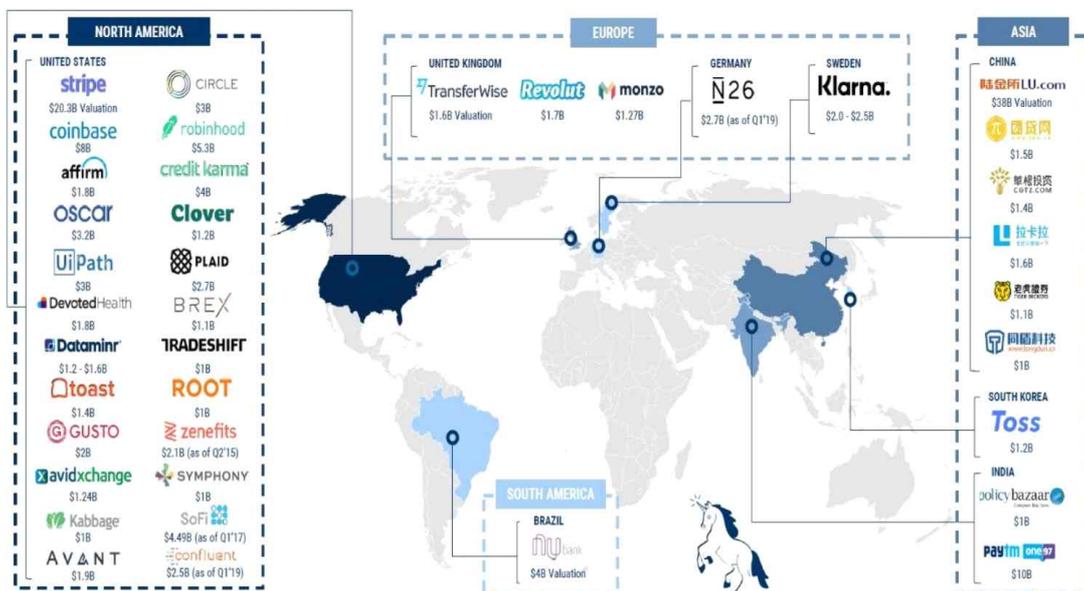
출처 : KPMG 2018 Fintech 100

▶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 '19.1월 기준 현재 시장가치가 1조원이 넘는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은 총 39개사로 총 162조원의 가치를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

- (분포) 2018년도에 16개사가 증가하였으며, 미국과 중국 지역에 편중

* 한국 기업은 간편송금 서비스 업체인 토스가 2018년 유니콘 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림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 분포 현황】



출처 : 금융감독원, 2019 Fintech Trends To Watch('19.1월, CB-Insight)

▶ **【주요국 동향】**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기술의 적용을 촉진하려는 움직임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관련 규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 세계적으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규제공백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보호 문제나 시스템리스크 발생 등 규제와 감독의 측면에서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기도 함
- **(영국)** 글로벌 금융허브의 지위와 IT분야 종사자가 많은 점을 이용해 기술 부문에서 경쟁력이 부각되며 핀테크 산업을 선도 중
 - * 과감한 규제 완화와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 '15.10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현재는 5차 샌드박스 진행 중
- **(미국)** 실리콘밸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네거티브(Negative) 규제 시스템으로 신산업 성장 발판 마련
 - * 규제를 통해 나타나는 사회적 비용이 기업이 얻게 될 이익보다 클 경우 해당 법안은 폐지될 수 있는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규제 정비가 의무화 되어 있음
- **(중국)** 지난 몇 년간 정부가 금융안정성의 적절한 수준에서 자율 형태의 시장이 조성되도록 하면서, 핀테크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
 - * 핀테크 기업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사후적으로 관리

【주요 국가별 핀테크 관련 정책】

구분	내용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런던에 TechCity, Level39 조성, Innovation Hub를 통한 인프라 구축 · 금융허브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2015.10월부터 세계 최초의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하는 Project Innovate 정책을 추진 · 2018.1월 오픈뱅킹(Open Banking) 제도 도입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확히 금지된 부분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 ·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로 규제의 불확실성 제거 · 비은행 금융기관 및 핀테크에 대한 금융규제 개선 권고안 발표, 특수목적 은행 신청 허용, 규제 샌드박스 도입 · 뉴욕에 Innovation Hub 설립, 15개 주요 금융기관의 지원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부터 비금융사가 대출, 펀드, 은행업 등 금융 전분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실험적 규제 완화 진행 · 상하이 자유무역특구 지역 내에 온라인 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하며 비금융회사의 온라인 영업을 시범적 수준에서 허가 · 2017.5월 핀테크 산업의 규제를 위해 금융과기위원회 설립 및 레그테크 도입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3월 핀테크 종합 육성 정책인 Fintech Action Plan 발표하였으며, 최근에는 클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홍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9월부터 금융당국이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FSS) 운영, 2019.1월까지 43개의 프로젝트가 참여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은행(RBI)이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검토 중

출처 :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 본부

3.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

▶【핀테크 기업 인수·합병 확대】

- (글로벌) 성숙단계에 있는 기업 간 인수·합병을 중심으로 핀테크 투자가 빠르게 확대

* 미국·유럽 등에서는 지급결제 분야를 중심으로 거래규모 1조원 이상의 메가딜이 다수 성사되는 등 투자 활성화

【2018년 글로벌 TOP 10 투자 현황】

구분	업체명	서비스유형	투자자	규모	거래월	거래유형
미국	Refinitiv	금융정보제공	Blackstone 등	\$17B	'18.10월	인수
중국	Ant Financial	지급결제 등	Silver Lake Partners 등	\$14B	'18.5월	지분 투자
영국	Worldpay	지급결제	Vantiv	\$12.9B	'18.1월	인수
덴마크	Nets	지급결제	Hellman & Friedman	\$5.5B	'18.6월	인수
미국	Blackhawk Network Holdings	지급결제	Silver Lake and P2 Capital Partners	\$3.5B	'18.1월	인수
미국	VeriFone	지급결제	Francisco Partners	\$3.4B	'18.8월	인수
스웨덴	iZettle	지급결제	PayPal	\$2.2B	'18.5월	인수
영국	Fidessa Group	지급결제	ION Investment	\$2.1B	'18.8월	인수
미국	lpreo	솔루션 구축	Blackstone, Goldman Sachs 등	\$1.9B	'18.5월	합병
영국	IRIS Software Group	솔루션 구축	Hg Saturn Fund, ICG	\$1.7B	'18.5월	인수

출처 :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 본부

- (국내) 소수의 핀테크 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M&A 보다는 국내·외 벤처 캐피탈사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성장

* 최근 4년간 국내 핀테크 투자 중 인수·합병은 약 9건으로 전체 투자의 10% 수준

- (평가 및 전망) 인수·합병 등의 메가딜 추세는 투자자들이 사업초기 보다는 수익모델이 검증된 성장단계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핀테크 기업들은 확실한 수익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핀테크 기업 IPO 성공 추세 둔화】

- (글로벌) 2018년 초 유니콘으로 분류된 25개사 중 3개사*만이 IPO에 성공하였으며, 대출관련 업체 2개사는 최근 주가가 공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
 - * (유럽) 펀딩서클(P2P), adyen(지급결제), (미국) GreenSky(온라인대출)
- (국내) 핀테크 업체의 IPO 추진은 부진한 상황이나, 2019년 2개사 상장(웹케시주(19.1.25), 세틀뱅크주(19.7.12))
- (평가 및 전망) 국내에서는 핀테크 경쟁 심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IPO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며, 기업의 경영권 우려 등으로 활발한 기업 공개를 기대하기 어려움

▶【사회적 혁신금융의 부상】

- (글로벌) 재무적 이익 등을 이유로 금융기관의 임팩트 투자* 및 ESG투자**는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
 - * 사회문제나 환경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기업에 투자
 - **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 지속가능투자 관점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투자
- (국내) 정부·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적금융 공급이 확대*되고 있으나, 민간 자본의 공급은 제한된 상황**
 - * '18년 1,937억원 → '19년 3,230억원 목표(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 P2P대출(썬루트에너지), ESG관련 대안적 신용 평가(지속가능발전소주) 등 일부 핀테크 기업이 추진 중
- (평가 및 전망) 투자 경험축적 부족,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 및 긴 회수기간 등으로 민간 투자자금 유치 어려운 상황이나, 성장 가능성은 대두되고 있음

참고 문헌

1.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2019-2021 핀테크
2. 핀테크(Fintech)의 주요 서비스 및 주요국 동향, '15.05
3. 핀테크의 발전 배경과 주요 동향, 한국통신학회(정보와 통신), '16.01
4. 핀테크 확산이 금융부문에 미칠 영향과 감사 시사점, 감사원, '17.09
5.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금융위원회, '18.03
6. 핀테크 시장 최근 동향과 시사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18.04
7. TDB 기술보고서(핀테크) '18.05
8. 핀테크 주요 트렌드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 '18.05
9. 핀테크 산업의 국내외 현황과 시사점, 산은조사월보, '18.09
10. 2018 대한민국 핀테크 기업편람, 한국인터넷진흥원, '18.12
11.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19.02
12. 현금이 사라진 세상, KTB투자증권, '19.02
13.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 전망 '19.02
14.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 금융감독원, '19.04
15. 영국 사례를 통해 본 금융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기대효과, 한국무역협회, '19.04
16. 핀테크(Fintech), 대신증권, '19.05
17. 글로벌 핀테크 10대 트렌드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 '19.06.
18. 최근 핀테크 스타트업 글로벌 투자동향, KDB미래전략연구소, '19.06
19. 핀테크와 은행업의 미래, 키움증권, '19.07

◎ 본 보고서 내용은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되었으며, 타 기관 자료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 내용은 내부 기업평가 활용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니 대외 유출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보고서 관련 문의사항은 다음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융합금융처 김인 TEL. 02-2130-1496)
